202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6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 답

1	②	2	④	3	④	4	①	5	⑤
6	②	7	⑤	8	③	9	②	10	③
11	⑤	12	②	13	①	14	②	15	①
16	⑤	17	②	18	③	19	③	20	①
21	④	22	⑤	23	③	24	①	25	①
26	④	27	③	28	①	29	②	30	③
31	②	32	④	33	⑤	34	③		

해 설

[1～3] (독서 이론) 헨리 뢰디거 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유창성 착각은 읽은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오해하는 현상으로, 별다른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독서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유창성 착각을 방지하려면 스스로 인지적 부담을 주어서 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독서 전략의 예로는 인지 활성화 전략, 인출 전략, 교차 읽기 전략이 있다. 이처럼 인지적 부담을 견디는 능동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독해력을 기르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다.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1문단에 따르면 글의 종류나 특징과 무관하게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면 뇌가 활성화된다. 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정 종류의 글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따르면 진정한 독서는 인내심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③ 1문단에 따르면 읽은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글로 요약하는 것은 인지적 출력에 해당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해 보는 것은 인지적 부담을 견디는 전략이다. 3문단에 따르면 인지적 부담을 견디는 독서를 할 때 수준 높은 독해 능력을 갖추게 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다른 주제의 글을 섞어 읽으면, 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며 핵심 내용을 잘 포착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1문단에 따르면 유창성 착각은 읽은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었다고 오해하는 현상으로, 실제로 이해한 정도와 스스로 이해했다고 믿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상태이다.

[오답풀이] ② 인지적 부담에 직면하는 것은 유창성 착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유창성 착각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읽은 내용을 말하거나 쓰면 유창성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유창성 착각이 한층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⑤ 유창성 착각은 까다로운 원전을 명료하게 정리한 글을 읽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명료하게 정리된 글을 읽을 때보다 까다로운 원전을 읽을 때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3.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2문단에 따르면 반추는 핵심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것이다. 학생은 ㉡에서 반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학생은 인공 감미료의 위험성을 다룬 기사의 내용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인지 활성화 전략에 해당한다. ② ㉠에서 학생은 예측한 내용이 실제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예측과 달라 인상 깊게 읽어 이해가 잘 되었다며 글의 내용을 더 잘 내면화하고 있다. ③ ㉡에서 학생은 인공 감미료라는 동일한 제재를 다른 관점에서 다룬 글을 찾아 기존에 읽었던 글과 비교해 읽고 있다. 이는 교차 읽기 전략에 해당한다. ⑤ ㉢에서 학생은 글의 내용을 빈 종이에 기억나는 대로 써 보고 있다. 이는 인출 전략 중 자유 회상에 해당한다.

[4～9] (인문 예술 주제 통합)

(가) 들뢰즈 외, 『천 개의 고원』

들뢰즈와 가타리는 고정되지 않는 상태를 긍정하면서 '탈영토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탈영토화는 안정성이 형성된 영역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말하며, '유목민'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존재를 상징하는 형상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탈영토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의식을 끊임없이 생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 남예지, 「재즈의 미학적 탐구」

아프리카 음악의 전통에서 유래한 재즈의 즉흥 연주는 재즈의 핵심 요소이다. 재즈의 즉흥 연주는 크게 개인적 차원의 즉흥 연주와 집단적 차원의 즉흥 연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솔로와 집단적 차원의 음악적 소통을 의미한다. 재즈의 즉흥 연주는 끊임없이 미지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가)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사용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그들의 입장을, (나)는 재즈를 구성하는 즉흥 연주와 재즈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사회적 함의를 제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는 재즈의 특성을 규정하는 솔로, 스윙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③ (가)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을, (나)는 재즈의 음악적 특성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두 글에서 모두 분석되지 않는다. ④ (가)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입장을 정신 분석학의 입장과 비교하고 있으나, (나)는 재즈의 형식을 다른 음악 장르의 형식과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특정 학자들의 논리가 지닌 허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며, (나)는 재즈의 음악적 의의를 부정하는 논리가 지닌 허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생산적 무의식은 끊임없이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정신 분석학의 무의식과 마찬가지로 의식보다 인간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생산적 무의식은 무의식이라는 점에서 의식되지 않는 것이며,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② 생산적 무의식은 인간이 세계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무의식으로 불린다. ③ 어린 시절의 가족 관계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정신 분석학의 입장이다. ④ 생산적 무의식은 탈영토화의 실천에 영향을 준다.

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재즈에서 솔로는 밴드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므로, 집단적 차원의 즉흥 연주에 참여하던 연주자도 솔로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재즈의 즉흥 연주는 아프리카 음악의 전통에서 유래했다. ③ 집단적 차원의 즉흥 연주에는 연주자 간의 서로 다른 리듬이 만들어 내는 긴장이 수반된다. ④ 재즈에서 솔로가 진행될 때 나머지 연주자는 솔로를 뒷받침하는 즉흥 연주를 한다. ⑤ 재즈의 집단적 즉흥 연주에는 다른 연주자의 연주를 모방하는 연주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7.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유목민은 안정성이 확보된 영토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재즈는 헤드에서 벗어나는 즉흥 연주의 과정을 본령으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재즈는 유목적이라 해석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헤드는 즉흥 연주를 통해 전복되는 대상이 맞지만, 즉흥 연주는 재즈를 헤드로 수렴하는 경로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② 재즈는 유목적이라 해석될 수 있으나, 즉흥 연주는 헤드를 성립시키는 준거가 아니라 헤드라는 규범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③ 재즈에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헤드가 있으나 즉흥 연주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④ 즉흥 연주는 헤드를 비트는 수단이지만, 헤드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라는 규범을 위반하는 과정이다.

8.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스윙 재즈에서는 즉흥 연주에 할애되는 시간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스윙 재즈의 연주자들은 스윙 재즈가 아닌 즉흥 연주 경연을 통해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즉흥 연주가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즉흥 연주의 기능이 위축된 결과로써 스윙 재즈에서 즉흥 연주에 할애되는 시간이 제한된 것이라고도 보기도 힘들다.

[오답풀이] ① 스윙 재즈라는 명칭에서의 '스윙'은 하나의 연주 스타일로 규정되며, 이런 면에서 집단적 즉흥 연주 과정에서 형성되는 스윙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② 스윙 재즈에서의 악보는 연주자들의 즉흥 연주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질서의 영향력이 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홈이 파인 공간에 대응된다. ④ 스윙 재즈 연주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악보의 제약에서 벗어나 즉흥 연주 경연을 벌인 것은 탈영토화가 집단의 영향 속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비밥이라는 예술 장르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경향을 보이는 데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예술이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 수용자의 무의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다.

ⓐ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에 까다롭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겪게 되는 곤란이나 시련이 많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상대가 되는 사람이 거리감이 있어 행동하기가 조심스럽고 거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0～13] (기술) 김병규 외, 『드론공학』

드론이 수평 자세를 유지하려면 자세 제어 시스템에 따른 자세 제어 과정이 필요하다. 자세 제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을 바탕으로 드론이 기울어진 각도를 추정한다. 이때 두 센서는 서로 다른 양상의 오차를 유발하므로 상보 필터가 두 센서의 측정값을 결합해 신뢰도 높은 각도 추정값을 산출한다. 이 각도 추정값과 목표 각도를 비교하여 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P 제어는 편차에 비례하여 출력값을 키운다. 이때 출력값이 크면 오버슈트가 발생할 수 있고 출력값이 작으면 정상 상태 오차가 남을 수 있다.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이기 위해 I 제어는 편차를 시간에 따라 누적하여 출력값을 키움으로써 드론을 수평 자세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다만 자이로 센서의 오차가 보정되지 않으면 I 제어에 의해 오버슈트가 발생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1문단에 따르면 목표 각도의 비교 대상은 센서의 측정값이 아니라 측정값을 바탕으로 현재 드론이 기울어진 각도를 추정한 값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각도 추정값은 센서로부터 얻은 측정값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편차를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모터의 회전 속도에 맞게 출력값이 산출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자이로 센서는 각속도를 측정하므로 단위 시간 동안 회전 각도의 변화량이 커질수록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도 커진다. ⑤ 1문단에 따르면 자세 제어 시스템을 통해 드론은 수평 자세를 유지하며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3문단에 따르면 상보 필터는 서로 다른 양상의 오차를 유발하는 두 센서의 측정값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오차를 보정한다. ㉠은 드론이 기울어진 각도가 짧은 시간 안에 변할 때 상보 필터가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영하는 상황이다. 이때 상보 필터가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영하는 이유는 자이로 센서가 감지한 급격한 자세 변화를 각도 추정값에 반영하고, 불규칙한 가속도로 인한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에 생긴 오차의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② 자세가 급변할 때 생기는 순간적인 오차는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에 생길 수 있는 오차로 이 오차는 중력 가속도의 방향을 이용해 보완할 수 있지 않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을 시간에 따라 누적하면 드론이 기울어진 각도를 추정할 수 있지만 ㉠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자이로 센서의 값을 누적할 때 미세한 오차도 함께 누적되므로 짧은 시간 동안에도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을 누적하면 오차가 누적된다.

12.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보기>의 드론은 상보 필터의 오류로 인해 특정 센서의 측정값이 지나치게 크게 반영되었다. 그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각도 추정값과 목표 각도 간의 미세한 편차가 발생한 것을 통해 자이로 센서의 미세한 오차가 각도 추정값에 누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편차가 누적됨에 따라 드론의 오버슈트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을 누적하면서 생긴 오차가 상보 필터에 의해 보정되지 않아, I 제어가 이로 인해 생긴 미세한 편차를 누적하면서 출력값을 키워 오버슈트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따르면 P 제어는 누적된 편차가 아닌 현재 편차의 크기에 비례하여 출력값을 조절한다. ③ 3문단에 따르면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에 발생하는 오차는 순간적인 오차이므로 이것이 누적되어 출력값이 점차 커지지 않는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드론의 각속도가 0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자이로 센서의 측정값이 크게 반영되면 자이로 센서의 오차가 각도 추정값에 계속 누적된다. 이로 인해 목표 각도와 각도 추정값의 편차가 시간에 따라 계속 늘어난다. 따라서 목표 각도와 각도 추정값의 편차가 없다고 판단하여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⑤ 3문단에 따르면 가속도 센서의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모터 회전에 따른 진동이나 돌풍이 만든 불규칙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와 함께 반영되는 경우이다. 현재 <보기>의 상황은 수평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한 편차가 누적되는 상황이므로 가속도 센서의 불규칙한 오차에 의해 각도 추정값이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13.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정상 상태 오차는 P 제어의 출력값이 외부 요인을 상쇄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따라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커질수록 P 제어의 출력값이 작아져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현재 편차의 크기보다 더 큰 출력값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P 제어는 현재 편차의 크기에 비례해서만 출력값을 조절하므로 정상 상태 오차가 발생한다. ③ 정상 상태 오차는 목표 각도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채 일정하게 남아 있는 편차를 의미한다. ④ 정상 상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편차가 작아지면서 P 제어의 출력값이 외부 요인을 상쇄할 수 없을 만큼 작아지기 때문이다. ⑤ I 제어가 편차를 시간에 따라 누적하고 이에 비례해 출력값을 키움으로써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인다.

[14～17] (사회) 성주호 외, 『알기 쉬운 연금학』

이 글은 기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자산 구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재원의 실질 가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 기관은 안정성뿐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지급 의무의 시점과 금융 자산의 특성에 따라 자산별 목표 비중을 정해야 한다. 특정 금융 자산의 비중이 높으면 그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이 전체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목표 비중을 정하게 된다.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특정 금융 자산의 실제 비중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기금의 운용 기관은 금융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실제 비중을 목표 비중에 가깝게 조정한다.

1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기금의 운용 기관은 지급 의무 이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목표 비중을 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자산을 구성한다. 기금을 구성하는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각 금융 자산의 실제 비중은 달라질 수 있지만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으므로 각 금융 자산의 실제 비중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기금의 운용 기관이 금융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 등의 외부 요인으로 재원의 실질 가치가 낮아져서 지급 의무 이행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③ 금융 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산 가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허용 범위를 좁게 설정한다. 따라서 반대의 경우에는 허용 범위를 넓게 설정할 수 있다. ④ 전체 지급 의무 가운데 가까운 시점에 이행해야 할 지급 의무의 비중이 큰 기금은 수익성보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해야 한다. ⑤ 주가가 하락하여 기금에 포함된 주식의 실제 비중이 허용 범위의 하한보다 낮아지면 운용 기관은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다. 기금의 운용 규모가 크면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가 하락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

15.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금 전체의 자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전체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도 커지게 된다. 2문단에 따르면 가격 변동의 폭이 큰 금융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그 금융 자산의 가격 변화가 전체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자산 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가격 변동의 폭이 큰 자산의 비중이 높아졌다면 재원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금융 자산별 목표 비중이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 금융 자산의 가격은 계속 변할 수 있다.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은 기금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급 의무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목표 비중이 정해졌다고 해서 지급 능력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③ 기금 전체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 지급 의무의 이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자산 가치 증가의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④ 금융 자산의 실제 비중이 목표 비중과 달라지는 것은 특정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비중의 변화가 반드시 전체 자산 가치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 기금을 구성하는 금융 자산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금융 자산의 실제 비중이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자산 구성을 조정한다.

16.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A 장학 재단이 해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해외 주식의 실제 비중이 허용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실제 비중을 목표 비중에 가깝게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목표 비중은 조정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A 장학 재단은 금융 자산들의 실제 비중을 목표 비중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A 장학 재단의 해외 주식 비중이 낮아진 만큼 다른 금융 자산의 비중은 높아져서 목표 비중보다 커지게 된다. A 장학 재단이 해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때 현금을 활용하였으므로 현금의 실제 비중도 다시 낮아져서 목표 비중에 가까워진다. ② A 장학 재단의 해외 주식의 목표 비중은 30%이고 허용 범위는 ±3%p이므로 해외 주식의 실제 비중이 27%가 되면 매수를 중단할 수 있다. ③ A 장학 재단이 해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때 보유한 현금을 활용하므로 A 장학 재단의 기금에서 가격 변동의 폭이 큰 자산인 주식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④ 해외 주식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A 장학 재단 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은 28%로 허용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A 장학 재단은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지 않았다.

17.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감수하다'는 '책망이나 괴로움 따위를 달갑게 받아들이다.'의 의미이므로 '감수하고'는 '알아차리고'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분산하다'는 '갈라져 흩어지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분산하여'는 '나누어'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③ '이탈하다'는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가다.'의 의미이므로 '이탈할'은 '벗어날'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④ '방지하다'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다.'의 의미이므로 '방지하기'는 '막기'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⑤ '완화되다'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이 느슨하게 되다.'의 의미이므로 '완화될'은 '누그러질'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18～22] (갈래 복합) (가) 송수권, 「등꽃 아래서」/(나) 김기택,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다) 박지원, 「소완정기」

(가) 송수권, 「등꽃 아래서」

이 작품은 등꽃을 보며 화자가 겪는 내면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화자는 등꽃을 응시하는 경험을 통해 내면의 성숙과 평온함에 이르게 된다.

(나) 김기택,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이 작품은 어둠을 응시하는 행위를 통해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다루고 있다. 방의 어둠을 오래오래 자세히 응시하던 화자는 어둠이 환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방 안의 잡동사니들이 빛을 내고 나누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다) 박지원, 「소완정기」

이 작품은 '소완'의 참된 의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인 '나'는 제자 '낙서'에게 눈으로 사물을 보는 과정에서 대상과 거리를 두고 집약해서 보

는 것인 '약', 정돈된 마음으로 대상을 이해하는 '오'를 설명한다. 더 나아가 마음을 비워 완상하며 대상의 실체를 이해하는 '소완'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한다.

1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와 (다)에서는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의문의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에 나타난 음성 상징어가 중심 제재의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② (나)와 (다)는 모두 어조의 변화와 이를 통한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다)는 공간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대상이 환기하는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⑤ (가)~(다)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나타내지 않는다.

19.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1연에서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판단은 2연의 '절제 없이 뻗어 있'는 '밑뿌리'와는 별개로, '꼬여 / 큰 둥치를 이루는'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1연에서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로 표현된 감정이 '잘게 부서져서' 해소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시점이 '이제'로 나타난다. ② 1연에서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어우러지고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는 것으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기쁨'과 '슬픔'이 섞인 복합적 양상이 드러난다. ④ 3연의 '또'는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에 나타나는 추측이 1연에서 제시된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과 유사한 측면에 기반한 것임을 드러낸다. ⑤ 1연의 '구슬 같은 소리'가 3연에서 '파란 옥빛 구슬 / 꺼내 드는 은은한 소리'로 구체화된 것은 감정의 '물결'이 가라앉고 평온해진 내면의 상태를 드러낸다.

20.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나)의 ㉠은 아침에 퇴근하는 화자의 상황이 전형적이지 않은 것임을 부각한다. (다)의 ㉡은 젖은 곳을 비추면 마르게 되고 어두운 곳이 빛을 받으면 밝아진다는, 글쓴이가 제시한 상황의 보편성과 결부된다.

[오답풀이] ② ㉡은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아니다. ④ ㉡은 행동 변화의 동기를 자극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⑤ ㉠과 ㉡은 모두 정서에 조응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다)에서 '빛이 널리 퍼져 정기가 흩어지'는 것이 글쓴이가 응시를 통해 포착한 빛의 속성은 아니며, 이를 통해 내면을 성찰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가 '등나무 아래 기대어서서' 등꽃을 본 후 내면의 변화를 의식하는 것과 (나)의 화자가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응시가 물리적 시각의 차원과 정신적 차원을 포괄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② (다)의 글쓴이는 '문에 구멍을 뚫고 살펴보는 것'에 이어 '마음으로 비춰 봐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응시가 다층적인 행위임을 드러낸다. ③ (나)의 화자가 '오래오래' 들여다봄으로써 '어둠 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이 / 내 눈을 발견'한다고 한 것은 응시의 대상이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응시의 주체와 대상 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음을 드러낸다. ⑤ (가)의 화자는 '큰 둥치를 이루는 것'에서, '너와 내가 자꾸 꼬여 가는 그 속에서 /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라 하며 인간의 삶을 떠올린다. (나)의 화자는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낮은 빛을 /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모습을 발견한다. 이는 응시를 통해 얻은 깨달음의 내용을 드러낸다.

22. [출제의도]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한다.

(다)의 글쓴이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심이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완'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소완'은 사물 가까이에서 대상의 외형적 특징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상을 집약해서 보는 것은 '소완'이 아니다. ③ 정돈된 마음으로 집중하여 눈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소완'의 참된 의미가 아니다. ④ '소완'은 대상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내면을 비우고 선입견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 자체를 탐구하는 것은 아니다.

[23 ~ 26] (고전 시가) 홍계영, 「희설」

이 작품은 눈 내린 세상의 풍광을 보며 느낀 감흥을 노래한 가사로, 아름다운 정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설경을 보며 깊어지는 화자의 흥취와, 그로부터 촉발된 상상을 통해 천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2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달'과 같이 특정 시간대를 드러내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특정 계절의 풍속이 묘사되고 있지 않다. ② 역사적 인물을 호명하고 있지 않다. ④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하여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의 변화가 드러나 있지 않다.

24.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은 '청산'의 변화를 인간사에 대응하여, 눈으로 인한 자연 풍광의 변모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본연의 모습을 잃은 자연에 대한 한탄을 표출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눈 내린 풍경을 '조물주'에 의한 결과로 인식하며 자연 변화의 다채로움에 감탄하고 있다. ③ '깨끗하고 희디흰' 정경의 조화로움이 '까마귀'에 의해 유지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④ '마당가 바위'를 보며 '장수'가 이를 보았다면 '큰 활'을 당겼을 것이라는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바위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⑤ '나에게도 나눌쏘냐.'와 같이 달에게 의향을 묻는 말을 통해 '밝은 기운'을 누리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25.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화자는 ⓐ의 늙은 가지를 보며 떠올린 흰 용의 등을 통해 천상 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상상한다. 또한 ⓑ를 놓아 하늘에 능히 오를 것을 상상하고 있으므로 ⓐ와 ⓑ는 모두 화자에게 상상 속 천상 세계에 도달하게 해 주는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어렴풋한 세상'은 달의 시각에서 내려다본 현실 세계에 해당하며, 천상 세계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도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말발굽 찍힌 자국'과 '새 발자국'을 보며 '은잔'과 '글자'를 떠올리는데, 이는 화자가 일상 공간을 낯설게 하는 요소를 발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화자는 '집', '뜨락' 등 익숙한 공간이 눈으로 덮인 모습을 보며 이를 옥으로 이루어진 비현실적인 정경으로 재인식하고 있다. ③ 설경을 바라보며 깊어진 감흥이 '눈 속을 배회하'며 흥취를 누리는 화자의 상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⑤ '북두 신선'에게 '신선주'를 권한 후 자신도 마시겠다는 말을 통해 천상의 존재와 교유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표출되고 있다.

[27 ~ 30] (현대 소설) 이호철, 「이단자 1」

1972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작은 변두리 동네에 이사 온 '강 씨'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단자로 규정되고 배척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강 씨'는 동네의 크고 작은 일에 간섭하며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지만, 이후 뒤로 돈을 챙긴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의심을 받는다. '강 씨'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동네 전체가 등을 돌리고, 결국 동네에서 쫓겨나게 된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혹시 저런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 '내심으로 저항을 느꼈던지' 등의 추측이 담긴 진술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드러난다.

[오답풀이] ② 이 작품의 서술자는 소설에 등장하는 '나'이므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대비된 입장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강 씨는 돈을 내지 않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돈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② 동네 사람들은 외등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는 강 씨와 마찬가지로 좋아하였으나 두 번째 외등이 설치될 때는 강 씨와 달리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29. [출제의도] 인물의 말을 이해한다.

㉠은 강 씨 자신의 상식에 비추어 외등을 도둑맞은 일을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는 말이며, ㉡은 강 씨의 '엄연히 법도 있는 것이고'라는 말을 되받아 강 씨를 쫓아내려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이다.

[오답풀이] ① ㉠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이 아니며, ㉡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말이 아니다. ③ ㉠은 외등을 도둑맞는 일과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을 예고하는 말이 아니다. ④ ㉠은 외등을 도둑맞은 일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말이 아니다. ⑤ ㉠은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며, ㉡은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말이 아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이웃 간의 이런 눈치는 당사자도 금방 알게 되는 법' 등에서 강 씨가 자신에 대한 소문을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 씨가 점점 '철면피해지고 악착스러워'가는 것은 집단의 정서를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강 씨가 돈을 걷어 첫 번째로 외등을 설치한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행위로 인식되어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 ② 강 씨에 대한 긍정적인 집단의 정서는 강 씨가 뒤로 돈을 챙긴다는 소문이 퍼지며 부정적으로 전환되고 굳어진다. ④ 동네에 수도가 들어오는 일이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일임에도 강 씨에 대한 부정적인 집단의 정서로 인해 수도 신청을 포기하고 그를 쫓아내는 것에서, 집단의 정서가 언제나 합리적인 방향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⑤ 동네 사람들이 강 씨의 집으로 몰려가고 결국 강 씨가 동네를 떠나게 되는 것은 집단의 정서로 인해 강 씨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31 ~ 34]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이 작품은 천상의 선녀와 선관이었던 숙영과 선군이 적강 후 천상의 인연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그린 애정 소설이다. 한편 이 작품은 유교적 가부장제 하의 결혼 제도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결혼을 통해 자식이 효를 다하고 가문을 빛내기를 요구하는 부모와 그에 맞서 부부간의 애정을 추구하는 자식의 모습이 조선 후기 사회에서 나타난 가치관의 변모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작품의 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선군은 숙영이 죽었다는 상공의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여 중문으로 달려갔고, 이후 동별당에서 나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문밖까지 들렸다. 따라서 선군이 동별당에서 나는 울음소리에 크게 놀라 중문으로 달려간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숙영은 선군에게 자신을 위해 삼 년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③ 선군은 자신을 붙들고 달래는 상공의 말을 듣고도 길을 재촉하여 임 진사 집을 그냥 지나쳤다. ④ 상공은 선군이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떠난 후에 숙영의 방에서 난 외간 남자의 소리를 듣고,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⑤ 선군의 부모는 병들어 누운 선군을 안타깝게 여겨 온갖 약을 구해 먹였으나 조금도 효험이 없었다.

32.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파악한다.

㉠을 꾸고 나서 선군은 꿈속에 나타난 숙영을 그리워하여 병이 들게 된다. 또한 선군은 숙영이 온몸에 피를 흘리고 나타난 ㉡을 꾸고 나서 숙영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꿈을 꾼 주체가 꿈속에 나타난 인물을 그리워하는, ㉡이 꿈을 꾼 주체가 꿈속에 나타난 인물의 안위를 걱정하는 원인이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과 ㉡은 모두 선군이 꾼 꿈으로 ㉠과 ㉡에는 모두 숙영이 등장한다. 그러나 꿈을 꾸고 나서 선군이 숙영의 진의를 의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에 나타난 숙영은 선군에게 자신이 '월궁 선녀'임을 밝히고 선군과 천생연분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은 선군이 숙영과 부부의 연을 맺은 후에 꾼 꿈이다. 따라서 ㉠과 ㉡이 꿈을 꾼 주체가 꿈속에 나타난 인물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갖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A]에서 상공은 임 소저가 천하의 미인이라는 정보를 언급하며 임 소저와의 혼례에 대한 선군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B]에서 하인은 선군이 임 소저와 혼례를 올리지 않고 그냥 가면 '임 진사 댁의 낭패도 매우 심할 것'이라는 자신이 가정한 상황을 언급하며 선군의 태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A]에서 상공은 한림학사라는 선군의 지위를 근거로 선군이 임 소저와 혼인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것을 유도하고 있다. [B]에서 하인은 선군을 '한림'으로 지칭하고 있을 뿐이지, 그 지위를 근거로 선군이 스스로의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④ [A]에서 상공은 선군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이 자신에게 미칠 이익을 숨기고 있지 않다. [B]에서 하인은 선군의 행동이 임 진사의 집안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을 뿐,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백 상공은 장원 급제하여 돌아온 선군에게 숙영의 죽음을 숨기고 '대장부가 어찌 한 부인만 둔 채 세월을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임 소저와 혼례를 올릴 것을 권한다. 그러나 백 상공이 임 소저와의 혼례를 추진한 것이 숙영의 장래를 염려하여 마련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숙영은 옥연동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선군의 병이 위중함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군의 꿈에 나타나 병을 치료할 약을 건네주었다. 이를 통해 숙영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천상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② 백 상공은 선군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선군과 숙영의 천생연분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선군의 꿈을 헛된 것으로 치부하며 선군에게 숙영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이를 통해 백 상공이 하늘이 정한 운명을 인정하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백 상공은 부모가 구혼한 결혼을 통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임을 들어 선군을 달래고 있다. 이를 통해 백 상공이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백 상공은 선군의 부재중에 숙영이 외간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의심하여 숙영에게 경계하는 말을 하며, 이는 결국 숙영의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유교 윤리에 따라 가문의 명예를 우선시한 백 상공의 가치관이 숙영과 선군의 사랑에 장애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③	*37*	④	*38*	①	*39*	①
40	⑤	*41*	①	*42*	③	*43*	④	*44*	⑤
45	④								

35. [출제의도] 재귀칭과 그 역사적 변천을 이해한다.

지문의 4문단에서는 재귀칭으로 쓰인 '당신'이 18세기 문헌에서 2인칭으로도 쓰인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며, 현대 국어에서 '당신'이 재귀칭과 2인칭으로 모두 쓰인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즉, '당신'이 2인칭으로 쓰이다가 18세기 이후에 재귀칭으로도 쓰이기 시작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6. [출제의도] 15세기 국어의 재귀칭을 탐구한다.

㉠은 재귀칭 'ᄌᆞ갸'에 관형격 조사 'ㅅ'이, ㉢은 재귀칭 '저'에 관형격 조사 'ㅣ'가 결합한 형태이다.

[오답풀이] ① ㉠에 쓰인 재귀칭이 가리키는 대상은 '정반왕(淨飯王)'이다. ② ㉡에 쓰인 재귀칭 '자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서술어와 호응하여 쓰이고 있지 않다. ④ ㉡에 쓰인 재귀칭 '자내'와 ㉣에 쓰인 재귀칭 '저'는 각각 '사리불(舍利弗)'과 '아비'를 가리킨다. 이때 두 재귀칭 모두 가리키는 대상을 존대하지 않는다. ⑤ ㉢과 ㉣에 쓰인 재귀칭 '저'는 모두 '아비'를 가리킨다.

37. [출제의도] 문장 구조와 문법 요소를 이해한다.

관형어는 '성실한'과 '주요', 사동사를 통한 사동 표현은 '맡기기', 부사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은 '성실한 그녀에게 주요 업무를 맡기기로'로 실현되었다.

[오답풀이] ① 관형어는 '언제나 가식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그의'로 실현되었지만, 그 외의 두 조건은 실현되지 않았다. ② 관형어는 '소비자의'와 '판매', 사동사를 통한 사동 표현은 '높이기'로 실현되었지만, 부사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은 실현되지 않았다. ③ 부사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은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에'로 실현되었지만, 그 외의 두 조건은 실현되지 않았다. ⑤ 관형어는 '나를 설레게 하는'과 '내', 부사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은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음에'로 실현되었지만, 사동사를 통한 사동 표현은 실현되지 않았다.

38. [출제의도] 표준 발음과 비표준 발음을 비교한다.

㉠의 표준 발음 '[그묘일]'에는 아무런 음운 변동이 적용되지 않은 반면에, 비표준 발음 '[금뇨일]'에는 ㄴ 첨가가 적용되었으므로 두 발음 간 차이는 ㄴ 첨가의 적용 여부에 기인한다.

[오답풀이] ② ㉡의 표준 발음 '[민나츨]'과 비표준 발음 '[민나슬]' 간 차이가 구개음화의 적용 여부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의 표준 발음 '[짤레요]'에는 겹받침 중 'ㅂ'이 탈락한 뒤 유음화가 적용되었다. 반면 비표준 발음 '[짬네요]'에는 겹받침 중 'ㄹ'이 탈락한 뒤 비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두 발음 간 차이가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 여부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의 표준 발음 '[삳싸치]'와 비표준 발음 '[삳싸시]' 간 차이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횟수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의 표준 발음 '[부어케]'에는 아무런 음운 변동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비표준 발음 '[부어게]'와의 차이가 서로 다른 두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39. [출제의도] 반의 관계를 이해한다.

ⓐ는 '생(삶)'과 '사(죽음)', ⓑ는 '실내'와 '실외'가 결합한 단어이다. '생'과 '사', '실내'와 '실외'는 모두 반의 관계에 있는 반의어로, 그중에서도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나누어 대립의 중간 지대를 상정할 수 없는 반의어에 해당한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승강기정보센터 누리집의 주소를 화면 하단에 고정해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진행자의 마지막 말에 언급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의 이름, 소속 등을 화면 우측에 제시하고 있다. ② 전문가의 모습을 작게 삽입해서 엘리베이터의 구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③ 방송 진행 중 시청자가 보낸 '우리가 탑승하는 부분을 '카'라고 하는군요!'라는 문자를 화면 하단에 제시하고 있다. ④ 엘리베이터의 식별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부착물의 예시를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의 소통 양상을 이해한다.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안전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겁니다.'라는 진행자의 말을 통해, 진행자가 방송을 마무리하며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진행자는 방송이 매달 4일 정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지난 방송의 내용을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③ 진행자는 제작진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방송의 주제로 엘리베이터 안전이 선정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전문가는 엘리베이터의 주요 부품과 구조적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시청자의 질문에 답변하며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전문가는 엘리베이터 탑승 중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를 언급하며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다.

'원칙대로'는 '침착하게'의 의견에 '저도요!'라고 공감하며 엘리베이터의 정원을 정하는 기준을 알아보려고 한다며 추가 정보를 탐색할 의향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안전준수'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방송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② '침착하게'는 방송 내용에 대한 보완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위험비켜'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만 방송 내용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⑤ '든든해요'는 '위험비켜'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43.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어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에서 '-어 있다'는 카에 로프를 연결하는 과정이 진행됨이 아니라, 카에 로프가 연결된 결과의 상태가 지속됨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 '진행되다'는 진행의 주체인 진행자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진행의 대상인 방송에 초점을 두기 위해 사용되었다. ② ㉡에서 '-도록'은 문자를 받는 목적이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③ ㉢에서 '-ㄹ 수 있다'는 엘리베이터의 구조적 안

전성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으로 인해 시청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⑤ ㉤에서 '또한'은 엘리베이터의 검사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승강기정보센터 누리집에 접속한 뒤 승강기 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 QR 코드를 이용하는 것도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44. [출제의도] 매체 활용 의사소통 방식을 파악한다.

㉤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수정한 사용자와 반영 일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문서의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수정 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을 통해 편집자만 문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을 통해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을 통해 도윤의 댓글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을 통해 문서의 특정 항목에 서진의 댓글이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구성 방식을 이해한다.

문서의 댓글에서 윤서는 관심 공간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저장한 관심 공간의 목록을 공유하자는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문서의 댓글에서 도윤은 달력 안의 예약 상태는 줄글이 아니라 시각적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앱에 사용자가 예약 상태를 '●, ×, ▲'와 같은 시각적 기호로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문서의 댓글에서 서진은 '더 보기'를 클릭하면 예약 상태의 상세 정보가 펼쳐지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앱에 사용자가 '더 보기'를 클릭하면 예약 상세 정보가 펼쳐지는 기능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문서의 댓글에서 민호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과 공간 유형을 골라 검색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앱에 사용자가 자치구·공간 유형 조건을 설정하여 공간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문서의 댓글에서 하린은 사용자가 '켬/끔' 단추로 알림을 설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앱에 사용자가 '켬/끔' 단추를 통해 실시간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